



한경 BUSINESS



창업시장서 뜨는 아이템 심층 분석
'인기 폭발' 월 지급식 상품 미래는
온라인 게임 산업 이끌 3가지 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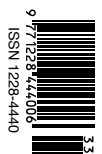
내가 나를 고용한다 블루오션 1인 기업

유럽 재정 위기의 4가지 시나리오

'재테크 공황시대 대안' 증권사 유망 상품 베스트9
백만 달러짜리 영감을 준 '프루스트식 친구 사귀기'
글로벌 IT 업계에 초대형 쇼크가 이어지는 까닭



값 3,500원



한국경제신문





중국 서부 대개발

외국 기업 적극 투자... 지속적인 관심 필요

최정식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상하이대표처 수석대표

지난 7월 20일 KOTRA 상하이KBC 큰 회의실에서 충칭시 량장신취(兩江新區) 관리위원회 리신밍(李信明) 부주임은 한국 대기업과 증권사 관계자에게 량장신취에 대해 발표했다. 량장신취는 2010년 6월 중



미국·유럽·일본의 우수한 대기업이 선점 효과를 노려 중국 서부 대개발 지역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국 국무원이 내륙지역에서 유일하게 비준한 국가급 개발 신구다. 20년 전 상하이 푸둥신취, 10년 전 톈진시 빈하이특구에 이은 세 번

째 국가급 개발 신구다. 충칭시 당서기는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이 될 것으로 유력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상무부장이다. 리 부주임은 보시라이 당서기가 상무부장으로 재직할 때 그의 비서실장이었다. 리 부주임은 실무자 스타일로 량장신취에 마련된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인 중한산업원에 대해 한국 기업의 눈높이 맞춰 매우 꼼꼼하게 발표했다. 이 자리에 초청받은 필자의 눈에도 근래 보기 드문 중국 정부 고위층의 모습이었다. 사실 중국 내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의 고자세에 불만을 토로하며 체념하다시피 했는데 리 부주임의 태도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충칭시는 면적이 서울의 135배나 되는 중국 서부의 직할시다. 인구가 3000만 명이 넘어 규모로 보면 작은 국가에 해당한다. 충칭시는 쓰촨성 청두시와 함께 서부 대개발 3대 경제구의 하나인 청위경제구의 핵심 도시다. 누가 보더라도 청위경제구가 중국 서부의 핵심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지역이 중국 동부의 연해 지역만큼 개발된다면 중국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명실상부하게 벗어날 것이다. 중국 정부는 그 시기를 2020년으로 잡고 있다.

충칭시가 지난 2010년 보여준 경제 실적은 단연 돋보인다. 2010년 충칭시 국내총생산(GDP)은 789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7.1% 증가했다. 2차산업은 4356억 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22.7% 늘었다. 고정자산 투자액은 30.4%, 소비재 매출액은 19.0%, 수출입액은 53.4% 증가했다. 금년부터 시작하는 12·5 규획 기간 동안 충칭시는 도시화율을 60%로 올리고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을 2배 가깝게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산업 인프라 부족하지만 잠재적 가능성 커

중국 정부가 서부 대개발의 가치를 높이 든 시기는 11·5 규획(2006~2010년)이 시작될 무렵이다.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여서 서부 대개발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기는 이르다. 허허벌판에서 중장비가 평탄 작업을 진행하는 지역을 경제특구라고 부르려니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아직 전력·교통·물류 등 산업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서부 대개발 지역에 일찍 진출한 기업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 대개발 지역이 주목받는 것은 잠재적 가능성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일본의 우수한 대기업이 선점 효과를 노려 서부 대개발 지역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서부 대개발 지역은 한국 기업에 여전히 미지의 대상이다. SK그룹이 작년 하반기에 쓰촨성 청두시에 진출해 활발하게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으나 다른 대기업들의 반응은 미약하다. 충칭시에는 한국타이어·금호석유화학·포스코 정도만이 진출했을 뿐이다. 중국은 거대한 대륙이어서 하나의 국가라고 접근할 때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 중국 내 지방색이 때론 국경을 넘어서는 문화적 이질감과 동일시될 때도 있다. 이런 점에서 서부 대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다.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한국 기업으로서 서부 대개발 지역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